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06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6.23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서교독 “시편 142편” 다같이

인도자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성도들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인도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성도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인도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성도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인도자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성도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성도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인도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오니이다

**성도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오니이다**

인도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같이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 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 “누가복음 15:11-32” 다같이
 말씀묵상 다같이
 말씀나눔 다같이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₃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제시도-다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1-1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12-16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 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 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의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20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20-21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24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25-27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 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 주었다. 28-30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 번 열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31-32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눅 15:11-32, 개역개정〉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묵상노트

감사찬양

주의 은혜라

blog.naver.com/suneun0691

Words & Music by 손경민

5 FM7 Em7 Dm7 C/E

5 FM7 C/E Dm7 F/G G

10 C Em F G 내 평
생 살아 온 길 뒤 돌아 보 니 짧은

14 C Em F G7 C C/E
내 인 생 길 오 직 주의 은 혜 라 주의

18 FM7 C/E FM7 C/E
은 혜 라 주의 은 혜 라 내 평 생 살아 온 길 주의

22 FM7 E/G# Am7 Em7 FM7 G
은 혜 라 주의 은 혜 라 다 함 이 없 는 사 랑

27 G7 C Em F G
달 러 갈 길 모두 마 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32 C Em F G7 C
공 로 전 혀 없 도 다 오 직 주의 은 혜 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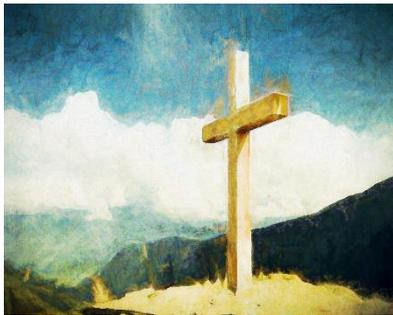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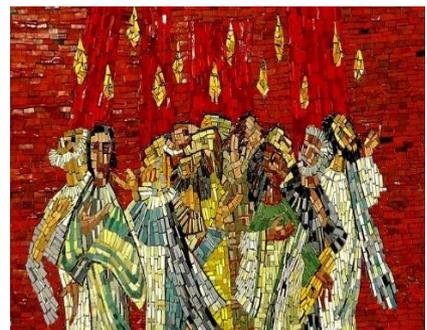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눔질문

(아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나누며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15:1-2절 참고)
2. 둘째 아들의 잘못(죄)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말해보십시오.(12절/13절/30절)
3.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때의 모습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다? (17절/18절)
5.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지었다 다시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나누어보십시오.
6. 첫째 아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7.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통독 진행상황

갓피플 성경통독 일정.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44일차> 역대하 30-34장입니다. 이번주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으며 힘내세요.

성경통독 여름수련회

언제 - 7.27(토)~30(화) [27(오후3시)-28(하루종일)/ 29-30(저녁7시-11시)]
방식 - 성경통독 수련회, 장소 - 길목교회 본당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길목교회 창립4주년

다음주일 6월30일은 길목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앙상블 토브와 함께 예배합니다. 길목교회로 함께 하게 된 뜻을 생각하며 감사와 축제의 시간 기대하세요.

천안 천성교회 사역 중보

이건명,김고은 집사님 부부가 오늘 천안 천성교회에서 해금과 가야금으로 사역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중보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 섬김

6월30일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14일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8월4일 - 조성권 청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